

EU 양돈산업 동향*

김 원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속의 EU 양돈산업

1.1. 생산 동향

2013년 4월 미국 농무부는 2013년으로 이월된 세계 돼지 사육 두수 추정치를 8억 125만 마리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 미국 농무부는 사료비 상승과 강력한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과 EU의 돼지 사육 두수가 감소하여 2013년 세계 돼지 사육 두수가 전년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고,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여파에서 회복된 우리나라의 사육 두수도 크게 증가한 결과 2012년 10월의 전망과는 달리 2013년 이월 돼지 사육 두수가 전년보다 0.5%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이월 돼지 사육 두수 7억 8,596만 마리보다 1.9% 증가한 것이다.

EU는 2013년 기준 세계 돼지 사육 두수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EU의 돼지 사육 두수는 강력한 동물복지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수요 부진으로 양돈농가의 사육 의향이 저하되어 2009년 1억 5,307만 마리에서 2013년 1억 4,700만 마리로 4.0% 감소하였다.

* (wkim@krei.re.kr 02-3299-4245).

표 1 국제 돼지 사육 두수 동향

단위: 천 마리, %

구 분	2009(a)	2010	2011	2012(b)	2013(c)		
					(c)/(a) 증감률	(c)/(b) 증감률	
중국	462,913	469,960	477,115	473,340	474,920	2.6	0.3
EU-27	153,067	152,198	150,773	148,545	147,000	-4.0	-1.0
미국	67,148	64,887	64,925	66,361	66,413	-1.1	0.1
브라질	33,892	35,122	36,652	38,336	38,578	13.8	0.6
러시아	16,165	17,236	17,231	17,258	18,793	16.3	8.9
캐나다	12,700	12,465	12,690	12,785	12,720	0.2	-0.5
대한민국	8,223	8,721	8,449	8,171	9,916	20.6	21.4
멕시코	9,310	8,979	9,007	9,276	9,510	2.1	2.5
일본	9,899	10,000	9,768	9,735	9,500	-4.0	-2.4
기타	12,642	13,661	14,136	13,647	13,903	10.0	1.9
합 계	785,959	793,229	800,746	797,454	801,253	1.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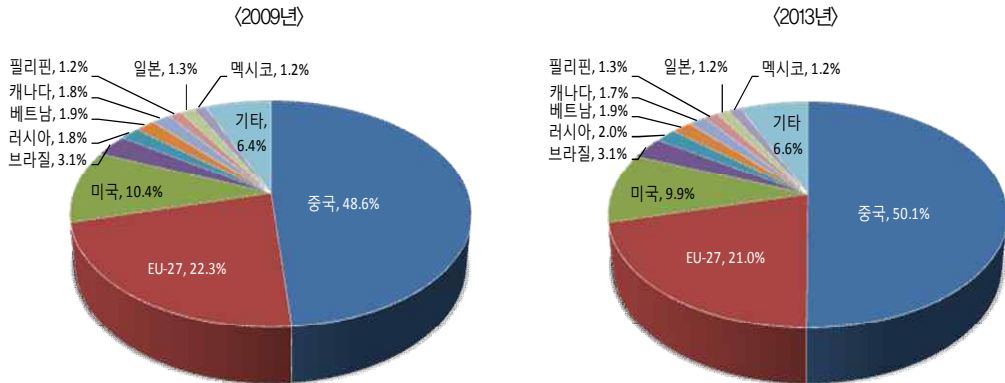
주: 매년 1월 1일 기준 사육 두수임

자료: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13.4)", USDA FAS.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3년 지육 기준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1억 741만 톤으로 2009년 생산량 1억 57만 톤보다 6.8%, 2012년 생산량 1억 552만 톤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돼지 사육 두수가 전년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것에 비해 지육 생산량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첫째, 모든 생산성 증가로 모든 마리당 생산된 자돈수가 증가하였고 둘째, 동물약품산업의 발전으로 질병관리가 수월해지면서 자돈 폐사가 감소하였으며 셋째, 사육 두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EU의 2013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 2,234만 톤보다 0.5% 증가하지만 2012년 2,263만 톤에 비해 0.4% 감소한 2,255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보다 사육 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효율적인 질병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폐사 감소와 도축 두수 증가, 사료 효율 개선으로 출하 체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EU의 생산량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13년 국제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2.3%보다 1.3%p 감소한 2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 비중 추이



자료: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13.4)", USDA FAS.

1.2. 소비 동향

미국 농무부는 2013년 지육 기준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을 2009년 1억 42만 톤보다 6.5%, 2012년 1억 425만 톤보다 2.0% 증가한 1억 698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9년 4,882만 톤에서 2013년 5,423만 톤으로 11.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신흥 양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브라질의 돼지고기 소비량 역시 2009년 대비 각각 18.8%,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미국의 2013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9년보다 감소하지만 201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육 두수 감소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진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EU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9년 2,106만 톤에서 2013년 2,031만 톤으로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별 돼지고기 소비량 비중을 보면 중국이 2009년 세계 돼지고기 유통량의 48.6%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지속된 경제 성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돼지고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50.7%로 더욱 소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EU는 2009년보다 2.0%p 감소한 19.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 국제 국산 돼지고기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	2009(a)	2010	2011	2012(b)	2013(c)	2013(c)	
						(c)/(a) 증감률	(c)/(b) 증감률
중국	48,823	51,157	50,004	52,725	54,225	11.1	2.8
EU-27	21,057	20,842	20,680	20,423	20,310	-3.5	-0.6
미국	9,013	8,653	8,340	8,438	8,659	-3.9	2.6
러시아	2,719	2,835	2,971	3,145	3,230	18.8	2.7
브라질	2,423	2,577	2,644	2,670	2,751	13.5	3.0
일본	2,467	2,488	2,522	2,557	2,533	2.7	-0.9
베트남	1,891	1,912	1,940	1,980	2,005	6.0	1.3
멕시코	1,770	1,784	1,710	1,838	1,930	9.0	5.0
대한민국	1,480	1,539	1,487	1,546	1,628	10.0	5.3
기타	8,781	8,983	9,312	9,607	9,707	10.5	1.0
합 계	100,424	102,770	101,610	104,929	106,978	6.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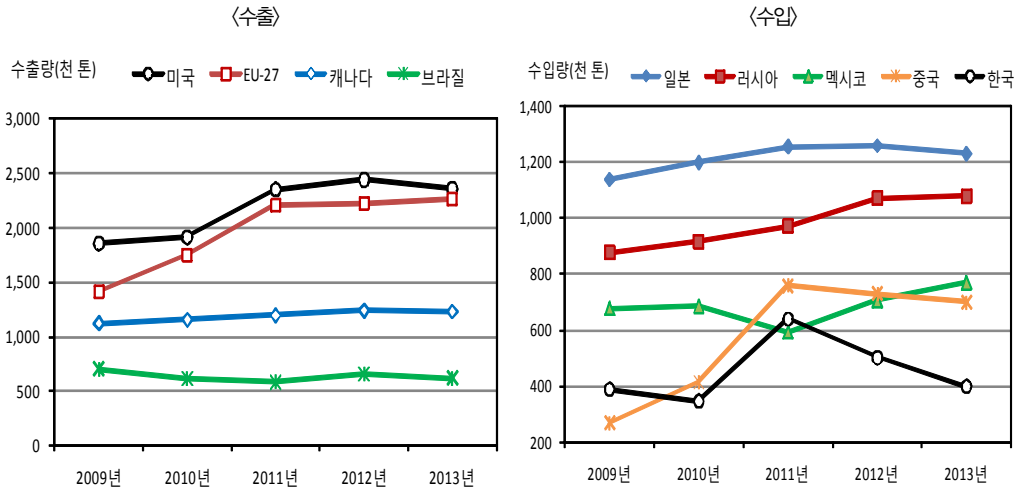
주: 지육 기준임

자료: USDA FAS, 2013.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13,4)", USDA FAS.

1.3. 수출 동향

2013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27.5% 증가하겠지만 2012년에 비해서는 0.8% 감소한 725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42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의 24.9%를 점유하였던 EU의 2013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와 유로화의 환율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됨에 따라 2009년보다 24.9% 증가, 2012년 223만 톤보다 1.5% 증가한 226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의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2년 30.4%에서 2013년 31.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지육 기준 세계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의 수출 여력 저하로 2012년보다 0.9% 감소한 684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엔화 강세, 미국산 쇠고기 소비 증가, 닭고기로의 대체 등으로 2012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였던 중국의 2013년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가격 저하로 2012년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에서 2013년 10.2%로 크게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가격 경쟁력이 쇠고기보다 우수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멕시코의 2013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2년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주요국 돼지고기 교역 동향



자료: USDA FAS, 2013.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13.4)", USDA FAS.

2. EU의 양돈산업 동향

2.1. 생산 동향

2.1.1. 사육 동향

EU의 모돈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는 강력한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모돈의 개별 스톨(stall)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따라서 자돈 번식농가는 신규로 모돈 사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모돈 사육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모돈수가 1,600만 마리 이상을 보였던 2002년과 비교하여 2012년 모돈수는 380만 마리 이상(-23.5%) 감소하였다. 2013년으로 이월된 EU의 역내 모돈수는 1,270만 마리로 전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돈수가 감소함에 따라 EU의 돼지 사육 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으로 이월된 돼지 사육 두수는 1억 4,700만 마리로 전년보다 150만 마리 이상(-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돈수가 감소하였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2013년 자돈 생산 두수는 전년보다 0.2% 증가한 2억 6,10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년 이월 두수를 포함한 EU의 2013년 돼지 총 공급 두수는 4억 800만 마리로 전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축 두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EU의 비육돈 도축 두수는 2억 5,300만 마리로 전년보다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산성 향상으로 자돈 폐사가 감소하여 2013년 돼지 손실 두수는 640만 마리로 전년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EU의 양돈산업 동향

구 분	2012	2013(p)	증감률
전년 이월 두수	148,545	147,000	-1.0
전년 이월 모돈수	13,085	12,700	-2.9
자돈 생산 두수	260,500	261,000	0.2
역외 수입 두수	2	2	0.0
총 공급 두수	409,047	408,002	-0.3
역외 수출 두수	1,240	1,200	-3.2
모돈 도축 두수	4,250	4,000	-5.9
도축 두수	254,000	253,000	-0.4
손실 두수	6,807	6,402	-5.9
후년 이월 두수	147,000	147,400	0.3
총 유통 두수	409,047	408,002	-0.3

단위: 천 마리, %

자료: USDA FAS, 2013, "EU-27 Livestock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Number: NL3005(2013,2,26), USDA FAS.

2012년 EU의 국가별 돼지 사육 두수를 살펴보면 독일의 사육 두수는 2,740만 마리로 전체 EU 돼지 사육 두수의 18.3%를 점유하여 EU 최대의 돼지 사육국가이며 스페인이 2,564만 마리로 17.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1,397만 마리로 9.4%, 폴란드가 1,306만 마리로 8.8%, 덴마크가 1,235만 마리로 8.3%, 네덜란드가 1,210만 마리로 8.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벨기에, 루마니아 등이 5백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돼지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역내 최대 양돈국가인 독일의 2012년 돼지 사육 두수는 역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9년 2,672만 마리보다 2.6%, 2011년 2,690만 마리보다 1.9% 증가하였다. 반면 높은 사료비와 새로운 동물복지 정책에 의한 사육 시설 개선 요구 등으로 사육 여건이 악화되어 스페인과 프랑스, 폴란드 등의 2012년 돼지 사육 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EU 국가별 돼지 사육 두수 동향

단위: 천 마리, %

구 분	2009	2010	2011(a)	2012(b)	점유율	(a)/(b) 증감률
벨기에	6,208	6,228	6,176	6,328	4.3	2.5
불가리아	784	730	664	608	0.4	-8.4
체코	2,135	1,914	1,846	1,487	1.0	-19.4
덴마크	12,195	12,873	12,293	12,348	8.3	0.4
독일	26,719	26,841	26,901	27,403	18.1	1.9
에스토니아	365	365	372	366	0.2	-1.6
아일랜드	1,511	1,502	1,500	1,553	1.0	3.5
그리스	1,061	1,112	1,087	1,109	0.7	2.0
스페인	26,290	25,343	25,704	25,635	17.3	-0.3
프랑스	14,810	14,552	14,279	13,967	9.4	-2.2
이탈리아	9,252	9,157	9,321	9,351	6.3	0.3
키프로스	465	463	464	439	0.3	-5.3
라트비아	384	377	390	375	0.3	-3.8
리투아니아	897	928	929	790	0.5	-15.0
룩셈부르크	78	89	89	91	0.1	2.1
헝가리	3,383	3,247	3,169	3,025	2.0	-4.5
몰타	66	66	69	46	0.0	-33.2
네덜란드	11,735	12,108	12,206	12,103	8.1	-0.8
오스트리아	3,064	3,137	3,134	3,005	2.0	-4.1
폴란드	14,242	14,253	14,776	13,056	8.8	-11.6
포르투갈	2,340	1,945	1,917	1,985	1.3	3.5
루마니아	6,174	5,793	5,428	5,364	3.6	-1.2
슬로베니아	432	415	396	347	0.2	-12.2
슬로바키아	749	741	687	580	0.4	-15.6
핀란드	1,400	1,353	1,340	1,290	0.9	-3.7
스웨덴	1,703	1,616	1,607	1,568	1.1	-2.4
영국	4,550	4,423	4,385	4,326	2.9	-1.3
EU-27	152,988	151,569	151,130	148,545	100.0	-1.7

주: 전년 12월 기준 사육 두수임.
자료: Eurostat.

돼지 사육 두수가 감소하였지만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2011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신규 시설투자와 높은 사료비로 인한 사육의향 저하로 전년보다 2.3% 감소한 2,188만 톤이었다.

EU의 2012년 기준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량은 독일이 546만 톤으로 전체 돈육 생산

량의 24.9%를 보였으며 스페인이 347만 톤(15.8%)으로 두 번째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가 196만 톤으로 8.9%, 폴란드가 170만 톤으로 7.7%, 이탈리아가 162만 톤으로 7.4%, 덴마크가 160만 톤으로 7.3%, 네덜란드가 133만 톤으로 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EU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량

단위: 천 톤, %

구분	2009	2010	2011 (a)	2012 (b)	점유율	(a)/(b) 증감률
벨기에	1,082	1,124	1,108	1,110	5.1	0.2
불가리아	38	37	48	49	0.2	2.1
체코	285	276	263	240	1.1	-8.7
덴마크	1,583	1,612	1,718	1,604	7.3	-6.6
독일	5,241	5,443	5,598	5,459	24.9	-2.5
에스토니아	31	32	31	- ¹⁾	-	-
아일랜드	196	214	234	241	1.1	3.0
그리스	118	114	115	115	0.5	0.0
스페인	3,291	3,369	3,469	3,466	15.8	-0.1
프랑스	2,004	2,010	1,998	1,957	8.9	-2.1
이탈리아	1,588	1,633	1,570	1,620	7.4	3.2
키프로스	58	57	55	52	0.2	-5.5
라트비아	25	23	23	24	0.1	4.3
리투아니아	41	55	59	59	0.3	0.0
룩셈부르크	9	10	10	10	0.0	0.0
헝가리	389	416	387	346	1.6	-10.6
몰타	7	7	7	6	0.0	-14.3
네덜란드	1,275	1,288	1,347	1,332	6.1	-1.1
오스트리아	533	542	544	530	2.4	-2.6
폴란드	1,608	1,741	1,811	1,695	7.7	-6.4
포르투갈	373	384	384	362	1.7	-5.7
루마니아	222	234	263	282	1.3	7.2
슬로베니아	24	25	23	21	0.1	-8.7
슬로바키아	70	69	57	54	0.2	-5.3
핀란드	206	203	202	193	0.9	-4.5
스웨덴	261	263	256	233	1.1	-9.0
영국	720	774	806	825	3.8	2.4
EU-27	21,279	22,011	22,388	21,884	100.0	-2.3

1) 2013년 에스토니아 생산량은 자료가 입력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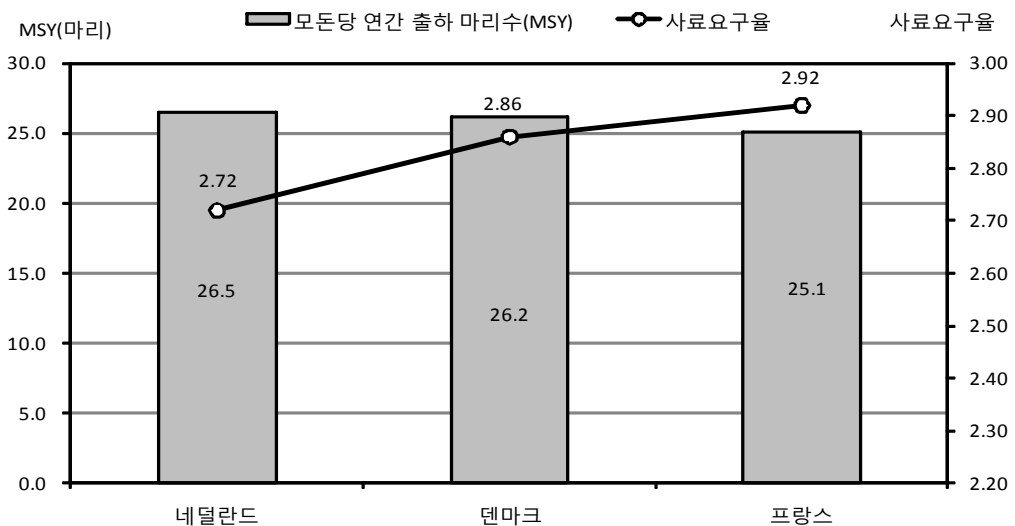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2.1.2. 생산성 동향

EU 양돈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높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EU 주요국의 모돈 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 두수를 나타내는 MSY는 네덜란드 26.5마리, 덴마크 26.2마리, 프랑스 25.1마리 등이며 대부분의 국가의 MSY가 22~24마리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012년 추정치 15.3마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육돈 체중이 1kg 증가하는데 필요한 사료 섭취량을 나타내는 사료요구율은 네덜란드 2.72, 덴마크 2.86, 프랑스 2.92, 스페인 2.93 등으로 우리나라의 3.2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낮은 사료요구율과 높은 MSY는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국제시장에서 EU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 EU 주요국 양돈 생산성(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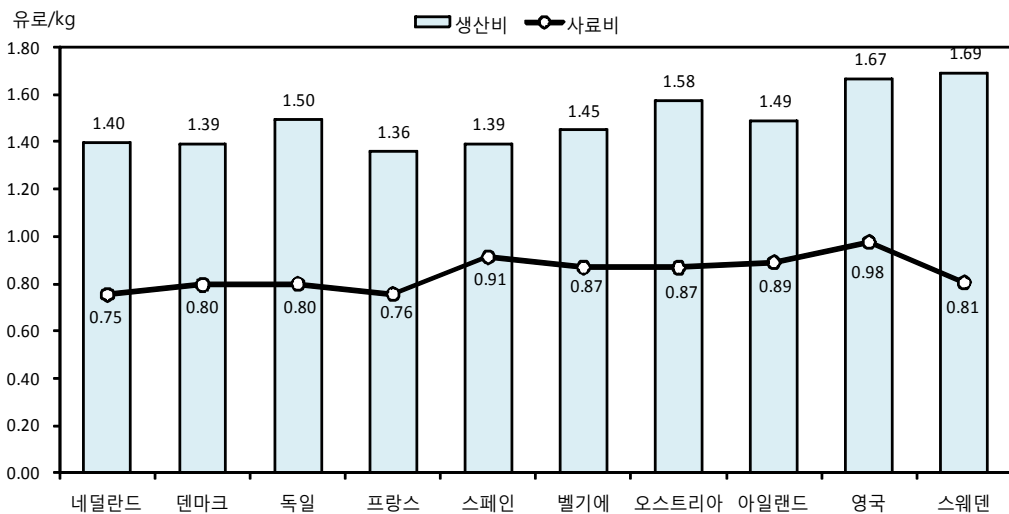
자료: "Pig International JAN/FEB 2012", WATT.

EU 주요국의 지육 kg당 사료비와 생산비를 살펴보자. 2010년 기준 네덜란드는 지육 1kg당 사료비가 0.75유로로 EU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0.76유로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지육 1kg당 사료비로 0.80~0.91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양돈 선진국의 사료비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며, 다른 EU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비슷

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EU 주요국의 2010년 기준 지육 kg당 생산비는 1.36~1.69유로로 나타났다. 생산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지육 1kg을 생산하는데 1.36유로가 필요하였으며 덴마크와 스페인은 1.39유로였다. 네덜란드는 지육 1kg당 1.40유로의 생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EU국가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생산비가 낮았으며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등이 우리나라보다 생산비가 높았다.

그림 4 EU 주요국 양돈 생산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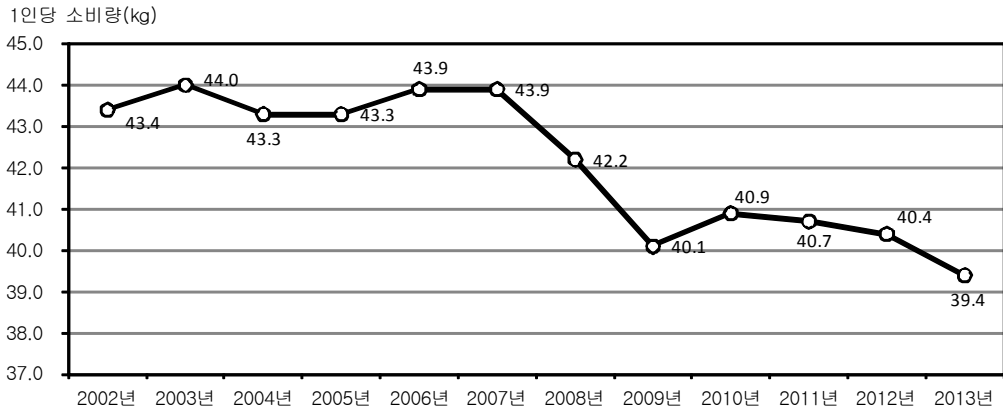


자료: WATT, 2012. "Pig International JAN/FEB 2012", WATT.

2.2. 소비 동향

EU 27개국의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1인당 44.0kg을 소비한 이래 2007년까지 1인당 43.9kg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EU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의 위기로 경기 침체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쇠퇴하였다. 2009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0.1kg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40.4kg까지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39.4kg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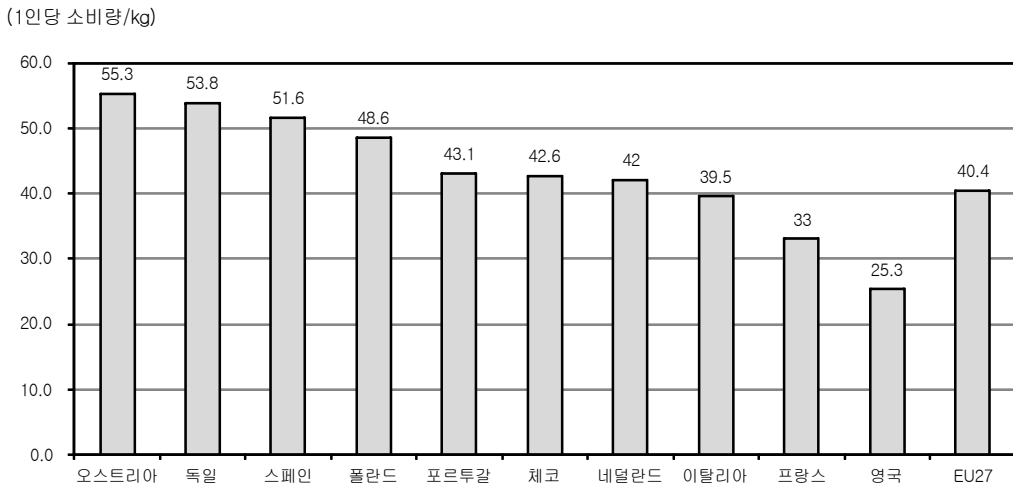
그림 5 EU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자료: Eurostat, 2012.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2」, Eurostat.

돼지고기는 유럽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렇지만 국가별 돼지고기 소비량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닭고기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이외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영국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5.3kg으로 유럽 평균 소비량보다 15.1kg 적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은 영국의 2배가 넘는 50kg 이상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등은 연간 1인당 40kg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그림 6 EU 국가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2012년)



자료: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13. 「畜産の情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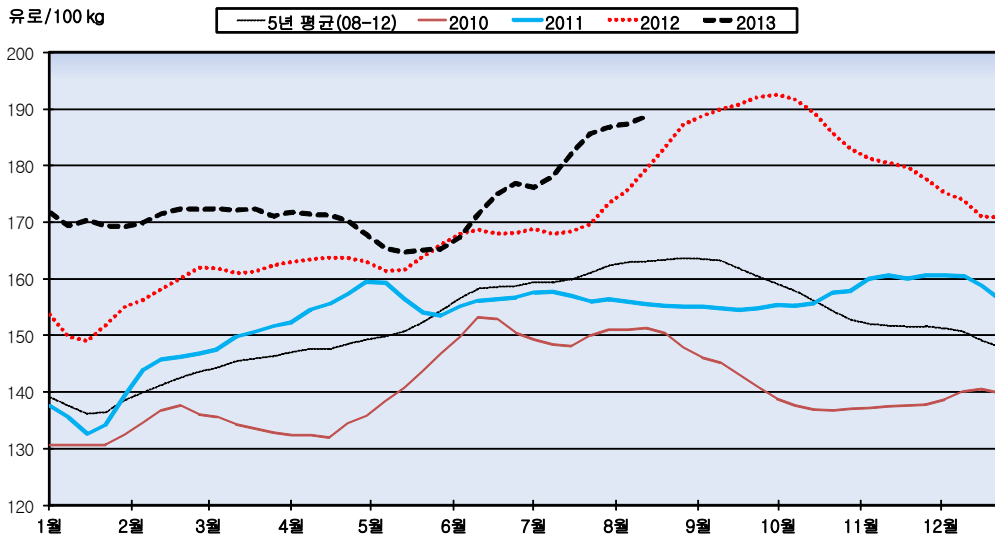
2.3. 가격 동향

EU 27개국 도매시장 평균 돼지 지육가격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며 휴가철과 바비큐시즌이 있는 여름철에 최고치를 형성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는 계절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EU의 평균 돼지 지육가격은 예년과는 달리 1~4월 가격이 지육 100kg당 170유로를 중심으로 보합세를 보이다 5월 가격이 165유로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러시아 등 역외 수출이 감소하였고 EU 전역에 걸친 저온 현상과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돼지고기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상승하였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수출도 증가하여 지육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7월 지육가격은 도축두수 감소에 의한 공급량 감소와 휴가철 수요 증가로 지육 100kg당 181유로까지 상승하였다.

EU의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2012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요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예상된다.¹⁾

그림 7 EU 돼지 지육 주간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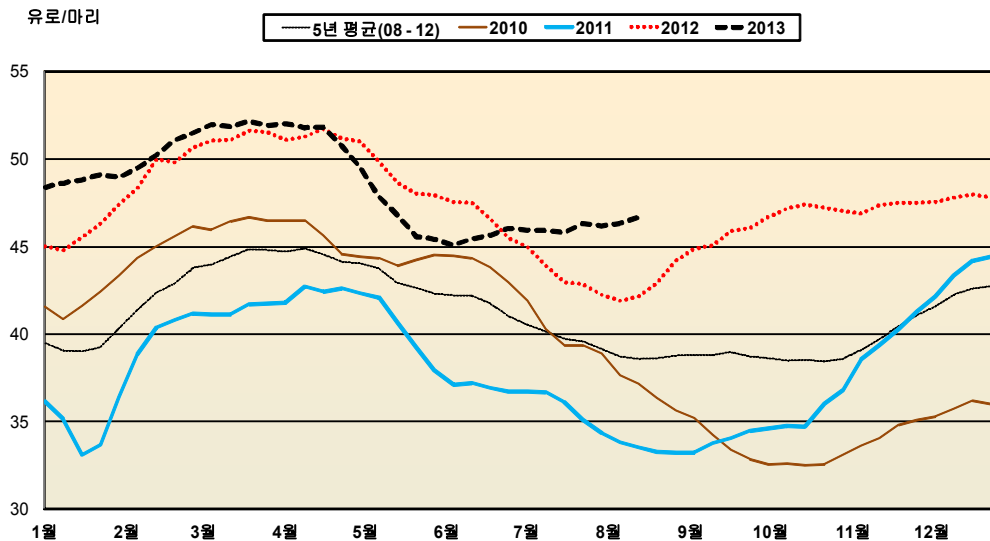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2013. "Weekly price report on Pig carcass & Piglet price in the EU", Eurostat.

1)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13. '畜産の情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http://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3/sep/pork-eu.htm>).

한편 EU의 평균 자돈가격은 2011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4월에는 자돈 마리당 평균 가격이 51.31유로로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3년 3월 자돈 평균 가격이 마리당 51.92유로까지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보였으나 4월에는 51.44유로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6월에는 45.53유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EU 내외의 돼지고기 수요가 동시에 저하되어 돼지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고 사료비도 상승하여 비육 경영농가의 사육 의향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6월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1톤당 322유로로 전월보다 4유로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8.3% 상승하여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돈용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대두박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의 모돈수 감소로 자돈 생산 두수가 제한되어 있어 향후 자돈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7월 자돈 마리당 평균 가격이 46.01유로로 전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 5.5% 상승하였으며 특히 8월 1~2주 주간가격은 자돈 마리당 46.34유로, 46.64유로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EU 돼지 자돈 주간가격 동향



자료: Eurostat, 2013. "Weekly price report on Pig carcass & Piglet price in the EU", Eurostat.

3. EU의 양돈산업 정책

3.1. 민간재고보조

EU는 역내 돼지고기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특정 부위의 돼지고기를 일정 기간 자기부담으로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업자에게 보관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EU 전역에서 발동된 바 있으며, 2008년 12월 아일랜드에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 급여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를 시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였다.

3.2. 수출보조금

EU는 EU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단가는 EU 평균 시장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에 기초하여 품목별, 수출대상국별로 설정하고 있다. 2007년 11월 이후 지급하던 수출보조금은 2008년 8월 이후 중지된 상태이다.

3.3. 돼지 관련 동물복지제도²⁾

돼지에 관한 동물복지제도는 1991년 제정되었고(EU 지령 91/630/EEC) 2008년에 개정(EU지령 2008/120/EC)된 "돼지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이사회 지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 지령에서 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체중별로 설정된 돼지 1마리당 충분한 사육 면적 확보, 둘째, 사육장의 바닥은 편안하고 깨끗하며 건조하게 유지, 셋째, 10마리 이상인 양돈장에서 임신 모돈의 스톨 사용 금지 및 군집 사육, 넷째, 군집 사육에 따른 충분한 사료 급여, 다섯째, 공복과 음식물을 입에서 씹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사료 급여, 여섯째, 관행적 꼬리자르기와 치아절단 금지 등이다. 이 중 둘째와 셋째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들이 준수하도록 정해졌으며 나머지는 2003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U 양돈 선진국들의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2) 「畜産の情報 2013년 9월호」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임.

3.4. 수태지 거세 금지³⁾

2010년 12월 16일 EU위원회는 2018년까지 돼지의 외과적 거세를 자율적으로 종료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공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돼지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주요 단체가 서명하였으며 EU의 양돈업계도 이 선언의 실행을 약속한 형태이다.

수컷 자돈에 대한 외과적 거세는 응취(雄臭)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양 관리상 문제가 되는 발정이나 난폭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널리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 자돈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식되어 동물 복지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구체적 시행 단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외과적 거세를 시행할 때 지속성 있는 진통제나 마취제를 인증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외과적 거세를 자율적으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EU위원회가 인정한 원산지 명칭 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통 특산품 보증제(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요건에 적합한 고품질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거세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인 종료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돼지고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양돈업자들은 EU만의 불리한 선언이며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이 과제로 남아 있다.

3.5. 모돈의 스톨 사용 금지⁴⁾

EU위원회는 돼지 생산 현장에서 2013년 1월부터 교배 기간이나 출산, 수유기를 제외하고 번식 모돈을 스톨에 가두어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리를 지어 사육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번식 모돈을 무리지어 사육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시설의 개축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과 새로운 사양 관리 방법에 대응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과 기술, 인력 등을 양돈업자가 독자적으로 장만하거나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양돈 경영체는 ① 번식 모돈 사육을 중지하고 자돈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비육 전문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② 폐업 혹은 모돈 10마리 미만의 규모로 축소하는 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돼지고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위에 서술한 모돈수 축소, 군집 관리에 의한 성장 불

3) 「畜産の情報 2011년 3월호」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임.

4) 「畜産の情報 2013년 9월호」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임.

균형과 사고 증가, 농장 인력의 노동 시간의 증가 등 생산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었으며 이로 인해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시사점

EU의 양돈산업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점유하고 있다. EU의 주요 양돈 선진국 사료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높은 사료 효율과 선진 사양관리기술로 모든 마리당 시장 출하 두수(MSY)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다.

그러나 강력한 동물복지정책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돼지 사육 두수 및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돈의 거세금지, 모돈의 스톨 사용금지, 꼬리 자르기 및 치아 절단 금지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부 양돈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동물복지정책이 국제시장에서 EU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모돈의 스톨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양돈농가들이 법적 조치 및 농장 폐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 EU FTA로 EU산 냉동삼겹살과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양돈 산업을 요구하는 외부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동물복지형 돼지고기의 가격 프리미엄이 600g당 4,561원이라는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들의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우병준 외, 2010).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EU산 및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1일부터 돼지로 확대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통해 공장형 축산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 EU의 양돈산업 동향과 동물복지정책이 우리 양돈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우병준 외. 2010.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R6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 Commission. 2012.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2*.
- EU Commission. 2013. *Short Term Outlook for EU arable crops, meat and dairy markets Summer 2013*.
- EU Commission. 2013. *Weekly price report on Pig carcass & Piglet price in the EU*.
- USDA FAS. 2013.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April 2013*.
- USDA FAS. 2013. "EU-27 Livestock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Number: NL3005(2013.2.26).
- WATT. 2012. *Pig International JAN/FEB 2012*.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2013. '畜産の情報'.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참고사이트

-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www.alic.go.jp))
- EUROSTAT (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